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5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2월)

복음화 지향: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께서는 깨끗하지 못한 우리
 입술과 강하지 못한 우리 손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을 성령으로 이끄시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2 7.3-8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 2.2 7.1과 3.4-5.7 8-8(◎ 1 ㄷ)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3-8.11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깊은 데로 배를 저어 나가 그물을 내린
 베드로 사도는, 결과를 보고 몹시 놀라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오늘 복음 말씀은 어부 베드로가 주님과 처음 만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맥이 빠졌을 겁니다. 배를 해변에 묶고 그물을 정리하고선 늘어지게 한숨 잘 생각이 간절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일을 '만들어' 시키십니다. 기껏 힘들여서 정박을 시켜 둔 배를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귀찮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는' 부탁을 했을 때, 선뜻 들어준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밤을 꼬박 새우고도 빈손으로 귀가를 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서, 만선을 기대하고 있을 가족들의 실망하는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그물을 씻고 또 씻으며 시간을 끌던 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암튼 별 사심 없이 그분께 자신의 배를 사용하게 했을 뿐인 그에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오매불망 집을 나설 적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히기를 소원했을 그 만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이룬 오늘,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기빠서 펄쩍 뛰는커녕,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떠나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선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기도하시고 좌절하게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여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쥘 수밖에 연연치 말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희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있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지혜인이 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 사도의 권유에 따라 온 세상이 그분을 향하도록 이끄는 특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 연중 제 5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두초 디 부오닌세냐 작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세계 병자의 날 유래

매년 2월 11일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에 제정한 '세계 병자의 날'이다.

1992년 5월 13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성모님께서서 1852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 수비르에게 나타나 치유의 샘물을 알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출처: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제 30차 세계 병자의 날 교황 담화

제 30차 세계병자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기 -**1.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보살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2.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이신 예수님 -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마태 4,23)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어,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스승님께 파견받은 사도들의 사명에서(루카 9,2 참조) 병자들을 걱정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3.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 어루만지기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우시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병자들 곁에서 사랑과 힘을 다하여 실천하는 봉사는 직업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사명이 됩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지는 여러분의 손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위대한 품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심하십시오.

4. '자비의 집'인 돌봄 센터

세계 병자의 날은 우리가 돌봄 센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병자를 향한 자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수많은 '착한 사마리아인 여관'을 열게 하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여관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가난이나 사회의 배척, 또는 특정 질병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교회가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 곁에 있음을, 다른 이들에게 무시받는 상황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교회 역사의 특징을 이루어 왔습니다. 버리는 문화가 만연하며, 마땅히 환영하고 살려야 하는 생명의 가치를 늘 인정하지는 않는 시대에 '자비의 집'과 같은 이 기관들은 모든 생명을, 가장 힘없는 이들까지도 그 시작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목적 자비: 현존과 곁에 있기

병자 방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위로의 직무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마태 25,36)**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세례 받은 모든 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담화문 전문 링크: <https://cbck.or.kr/Notice/20220012?gb=K1200>

※ 전 세계 모든 병자와 극심하게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과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 곁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랑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 연중 제 5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⑤
 택배 박스는 테이프 제거하고 버리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⑧
 하루 5회, 급제동과 급출발 하지 않기
 → 2.19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https://anuzoom.us/j/5860472074?pwd=L1JMeGxUTUtsdVROMXp1WURONDFVZz0>)

주일미사 의무 관면 (온라인 미사)

크리스토퍼 대주교님은 2020 년 3 월부터 팬데믹 기간동안 주일미사 의무에 대한 관면을 허락하셨습니다. 미사 참례가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미사 중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Catholic Voice

<https://www.catholicvoice.org.au/mass-online/>

Mass for you at Home

<https://massforyou.com.au/>

Mass on Demand

<https://www.youtube.com/user/cathnews>

평화방송 매일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BoZynea6G3hlgMA1NEQ-zw>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의 : 각 소공동체장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 월 23 일	성인 43 아이 14	1 월 30 일	성인 37 아이 21
----------	-------------	----------	-------------

□ 우리들의 정성 (1 월 29 일(토)~2 월 4 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민	주정자	주진호	진윤기	한상지
허준	교무금 : \$900 (17가정) / 봉헌금 : \$28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2 월 6 일, 연중 제 5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2 월 13 일, 연중 제 6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6 일) 마태오회 → (13 일) 루카회 → (20 일) 요한회

□ 대교구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 ① 실내에서 1 명당 2 제곱미터(sqm) 공간 확보(직계가족, 유아 제외) ②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12 세 미만 제외)
- ③ 성당 입구에 비치된 Check In CBR 앱으로 방문자 등록 ④ 성당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

♡ 오성현 윌리엄(10 일) 어린이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신임 소공동체장님(권순주 리타(요한), 김수연 베로니카(루카), 이상원 안드레아(마태오)) 환영합니다.

♡ 전임 소공동체장님(서은주 데레사(요한), 주정자 루치아(루카), 최재원 스테파노(마태오)) 감사합니다.